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동안을

**양극단**  
**정치 라파**  
**중도 실용**  
**민생정치**



중용의 정치

손학규 안철수 현상과 함께하는

**3 문태환**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시동안구을)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문태환	남	1960. 06. 22 (59세)	자영업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부전공: 법학)	(前)味元 회사 근무 (前)고려사관 학원 운영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131,686	1,246,543	885,143	-	0	육군병장 만기제대	해당없음

##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4,571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8,578	없음	없음	
배우자	5,993	없음	없음	
직계존속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 4. 소명서

# 극단적 양 진영 논리를 타파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동안(을) 시민 여러분!  
진영논리에 함몰된 양극단정치, 적대적 싸움 정치를 혁파하고  
중도 실용 민생정치의 꿈을 실현하고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3 문태환 인사드립니다.

##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은 외면하고 끝없이 권력쟁투에 매몰된  
지금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의 목소리는 낼 수도 없는  
살벌한 정치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 손학규 안철수 현상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민생을 우선하고,  
바깥하는 국회의원, 합리적 정책 대결과 대안 제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출마한 저 문태환에게 소중한 한표로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결정치와 비상식적인 오염 정치를 청산하는  
것으로 저 문태환은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용 중도 정치의 실천자

민생당 동안(을)  
국회의원 후보

문 태 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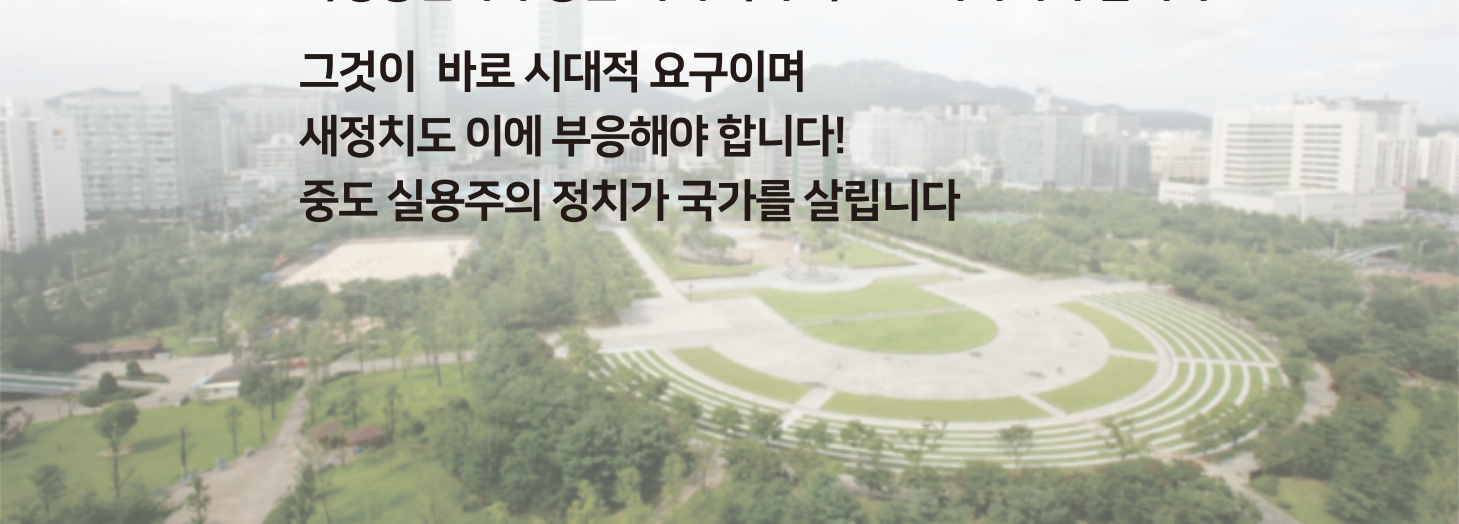
# 경제와 평화 그리고 중도실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질서 존중, 복지국가 실현, 민생우선  
이념적 대결 타파로 진영논리 완화,  
전 방위적 중도실용노선, 개혁과 통합

“ 민생당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7공화국 손학규, 안철수 현상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

적대제 공생관계!! 낡은 산업화 세력들!!  
또 그 과정의 부산물인 민주화 데모부대 잔존 세력들의  
국정농단과 무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 요구이며  
새정치도 이에 부응해야 합니다!  
중도 실용주의 정치가 국가를 살립니다



#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 “양극단 대결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는 양극단 대결정치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구태 보수 야당도 국정운영 무능 현정권도 모두 가혹할 정도로 심판 받아야 하겠습니다!!
- ▶ 한미일 동맹 위협, 한반도 평화 혼란, 경제파탄과 포퓰리즘 퍼주기 등의 현 집권세력은 기득권에 집착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괴물야당과 다를 바 없는 국가의 암덩어리 적폐입니다.

검찰개혁 언론장악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내로남불식 안하무인적 태도로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발전을 위하여 무슨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무조건 상대방을 끌어내려 어거지식 집권욕에만 불타 있습니다!!



## 바뀌어야 합니다!!

### 유권자가 변해야 분노와 대결로만 치달는 비정상적인 정치질서를 혁파시킬 수 있습니다.

제3지대 중도 무당파 민중들에 의해 새로운 의회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도세력이 분열하고 실망을 드린 점 없지 않으나 그래서 안철수측은 지역구를 내지 않고 흩어지고 손학규의 민생당이 그나마 중도정치의 명맥을 이어가며 어렵게 견디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연동형 선거제조차 이들은 꿈수로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극단 세력을 꾸짖을 제 3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를 3당 구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의미있는 제 3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수의 말이 없는 중간지대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강하게 결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지대 중도 실용정치로 양극단정치 타파  
**3 문태환**



# 문태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질서와 형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면서  
그동안 개발독재시대의 낡은 소위 쌍팔년도식의 사고방식들은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중도실용적인 개혁에  
매진해야하겠습니다.

## 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권 꼭두각시 정권입니까?

아니면 비평화 반개혁적인 소위 끈대 적폐들의 집합소인 분홍색입니까?

바로 제 3정당 중도세력이 아니면 중용의 정치는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당제의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거대 양극단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혁파하고 개혁해야 할 답답한 정치구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는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기본에 충실한 밝고 행복한 사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  
그래야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 중도 실용정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경제는 어떻습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무능정부 좌파 파쇼정권에서 이념적으로  
무장한 홍위병들의 날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반일종족주의로 무장하자고  
주장하는 부류들은 제정신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우매한 군중이 되지 맙시다~  
늙은 보수와 진보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  
삶 자체를 우울하게 지배해 갈 뿐입니다.

거꾸로 가는 권위주의 봉건사회 아니면 흥청망청  
허물어져 가던 남미국가의 붕괴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정을 양극단 세력의 농단에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주변세력으로 내몰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덕원~동탄 전철, 교도소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목적 이용 등 식상한 것을  
공약이라고 특별히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국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발전과 주민들의 뜻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도정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3기대 중도 실용정치로 양극단정치 타파  
**3문태환**

# 꽃

- 김춘수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 삼

- 매봉산 너구리 -

오늘도 어김없이 신발 끈을 맨다.

지팡이를 들고 매봉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매암소리 쓰르르~~~  
녹음방초 속으로 시원스레 올려 퍼지고  
한 여름날의 숲속에는  
고요한 풍광의 향기가 펼쳐지노라!!!

이제 단풍을 지나 화려한 잎들은 다 벗어 던지고  
비록 황망한 계절이지만  
생명은 숨을 죽이고 살고 있다.

문명의 굉음은 요란하게  
연기를 내 뿜으며 터널을 빠져나와  
높은 고가를 향해 질주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처없이 어디론가  
숨도 쉬고 움직거리며 흘러가긴  
하는 것 같은데

감각도 의욕도 점점 무뎌져  
삶의 질도 한참 추락해 가는 몸통!  
건강이 행복이고 행복이 건강 아닌가?

따스한 봄 날 다시 새싹이 돋을 즈음에는  
우리의 맘이라도 좀 녹아주려나

## 학 력

- 안양남초등학교 졸업
- 신성중고등학교 졸업
-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법학 부전공)

## 경 력

- 株)味元회사 근무(前)
- 고려사관학원 운영(前)
- 中庸研究會義 의장(現)

구태, 적폐 야당과  
포퓰리즘 무능 정권에게  
또 표를  
주시겠습니까?



소시민을 위한  
중도실용정치인

3세대 중도 실용정치로 양극단정치 타파  
**3문태환**

010. 8716. 1946

카카오톡, 페이스북 검색 요망